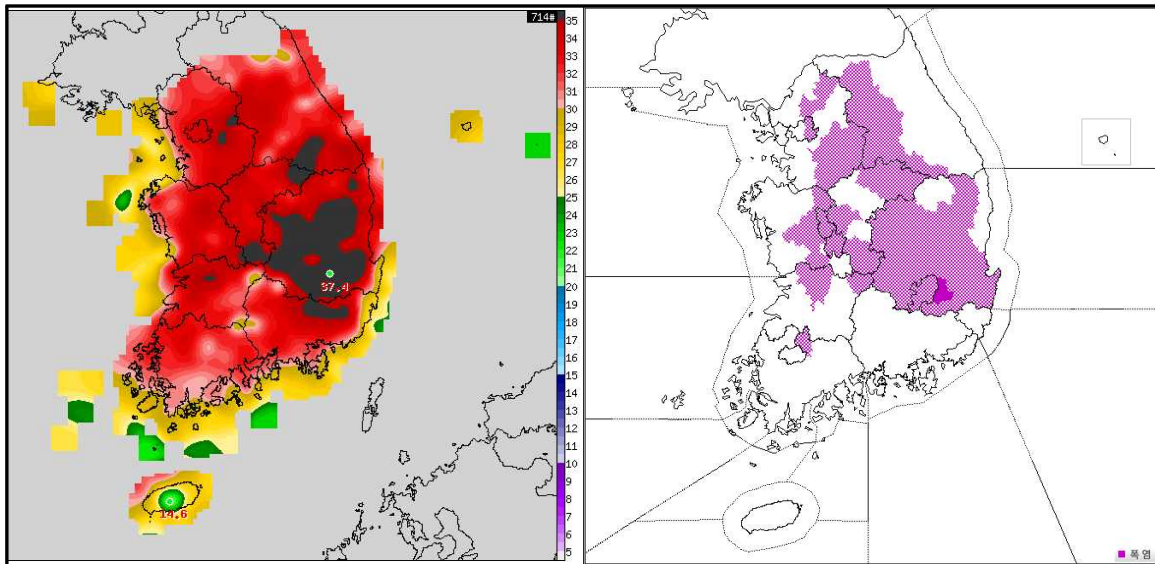


배포일시	2020. 6. 9.(화) 16:10 (총 2매)		보도시점	즉 시	
담당부서	대구지방기상청 예보과	담당자	과장 김병춘	전화번호	053-282-0125 053-956-0365

대구·경북 대부분 지역 폭염 기록

- 내일(10일) 밤~모레(11일) 오전에 비가 오면서 더위 주춤 -

□ (기온 현황) 오늘(9일) 울릉도를 제외한 대구·경북 23개 시·군에서 낮 최고기온이 33~35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났으며, 대구는 37.0도,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경산시 하양읍은 최고기온이 37.4도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기록되었습니다.



[6월 9일] 최고온도 분포도(16시 현재) 및 폭염특보 현황

- 오늘 낮 최고기온 현황(9일 16시 현재, 단위: 도)
 - 하양(경산) 37.4, 대구 37.0, 기계(포항) 36.9, 길안(안동) 36.9, 신녕(영천) 36.8, 김천 36.7, 성주 36.5, 소보(군위) 36.5, 청송 36.4

※ 폭염특보 현황

- 폭염경보: 경북(경산)
- 폭염주의보: 대구, 경북(경북북동산지, 영양평지, 문경, 청도, 경주, 포항, 청송, 의성, 안동, 예천, 상주, 김천, 칠곡, 성주, 고령, 군위, 영천, 구미)

□ (원인) 대구경북지역은 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낮 동안 강한 햇볕으로 지면이 가열된 가운데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불어와 기온이 더욱 높게 나타났습니다.

[폭염 전망]

□ 내일(10일)도 대구경북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오르면서 매우 덥겠으며 내일(10일) 밤부터 모레(11일) 아침까지 흐리고 비가 오면서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.

○ 폭염특보가 발표된 지역에서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, 낮에는 격렬한 야외활동을 가급적 자제하기 바랍니다.